

공자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은행나무

</

고을을 지켜온 수호목이자 신목인 보호수(나주-15-4-16-2) 은행나무는 나주향교의 대성전 옆의 담벼락과 인접하여 자라고 있다. 나주향교는 조선 전기에 창건되었다.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앞에 있고, 학문을 배우는 명륜당이 뒤에 있다. 향교의 대성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독특한 점은 창건될 때 공자의 고향인 산둥지방에서 흙을 가져와 대성전의 벽에 발랐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55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670cm 정도이다. 나무 갓은 사방의 너비가 1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이 굵고 위쪽으로 곧게 올라갔으며, 군데군데에서 가지 줄기를 내어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지면으로 보면 하늘 높이 수직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다. 밑동은 맹아에서 자란 어린 가지가 무성하다. 줄기는 한쪽면의 밑동에서부터 높이 8m 정도까지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가 되었는데, 이는 예전에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채운 것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식재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은행나무는 옛날에 향교에 많이 심어졌다. 향교에 심는 내력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며, 또한 곧게 자라는 은행나무처럼 유생들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다. 벌레가 잘슬지 않아 관직에 진출할 유생들이 부정에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 향교와 서원에 많이 심었다. 유교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다. 나주향교의 은행나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 이성계는 나주를 방문하여 정도전과 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의논할 때에 은행나무를 향교에 심는 것까지 논의하였다. 이 은행나무는 묘목상이 공자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1960년대 초의 어느 초겨울에 어린이들이 속이 빈 곳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서 꺾으나 3일 동안 연기가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의미를 더하여 행운을 가져다주는 나무로 여기고 있다. 나주향교의 은행나무는 나주의 '금성관' 후원의 700살 쌍자매 은행나무와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으며, 넓은 그늘을 만들어 돌담길의 행인들에게 푸근함을 안겨주고 있다.

